

# 나라국어 이유진, 이것이 진짜 적중!

문 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불임표(-)를 쓸 수 있다.

- ① 독도: Dok-do      ② 반구대: Ban-gudae
- ③ 독립문: Dok-rip-mun      ④ 인왕리: Inwang-ri



♥ 로마자 표기법 불임표의 용도 및 선지 적중  
**나라국어 알기 쉬운 문법 p. 381, 문법의 단권화 p. 178, 무료특강 어문규정마스터7 - 로마자 표기법 p. 2**

제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불임표(-)를 쓸 수 있다.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불임표가 없으면 <b>중앙</b> 으로 오해 가능	불임표가 없으면 <b>반구대</b> 으로 오해 가능

♥ 로마자 표기법 불임표의 용도 적중 <예상 300제>

국가직 문 1.> 예상 300제 p. 16

21. 로마자 표기에서 반드시 불임표를 써야 하는

- ① 반포동 Banpo-dong
- ② 김복남 Kim Bok-nam
- ③ 덕수궁 Deoksugung
- ④ 퇴계로 Toegye-ro 3(sam)-ga

인왕리 Inwang-ri  
 종로 2가 Jongno 2(i)-ga  
 불국사 Bulguksa  
 독립문 Dongnimun  
 축적루 Chokseongnu  
 다보탑 Dabotap

문 3. (가) ~ (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 (라) 태몽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쓴다.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아닌 '라고'를 쓴다.

♥ 조사 활용의 적절성 적중 <예상 300제> 동시성

161. 문장에 쓰인 '격 조사'를 평가한 것이 잘못된 것은?

- ㉠ 최우수 동아리에 선정한 것을 축하해.
- ㉡ 내가 어른으로의 도달이 하기도 했다.
- ㉢ 우리 학교가 방과 후 학부모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 계속된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고 있다.

- ① ㉠: '에'를 '로'로 써도 돼. 둘 다 '자격'을 나타내잖아.
- ② ㉡: '로써'는 '로서'로 바꾸는 게 좋겠어. '로서'가 '어른'이라는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지 않아.
- ③ ㉢: '가'는 '에서'로 바꾸는 게 좋겠어. '우리 학교가' '장소'를 나타내고 있잖아.
- ④ ㉣: '으로'를 '에'로 써도 돼. 둘 다 '어떤 일의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니까.



문 4.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 내용들로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이다.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 졸리는 오후 시간에 끈기없이 외국어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의 수업을 가장 좋아한다. ㉢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한다. ㉣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 기출 우수문항 선별 유형 적중 <국가직 마무리 - 출제 포인트99>

문 10. 다음 단락을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이란 경이한 자제로 쓸 것입니다. ㉠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라든가 무슨 문제를 말할 때 필자의 독단적인 단정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 들은 바에 의하면이라든가, '세상 여인이 어떻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필자의 독단적인 단정으로 그 뒤에 따르는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만이며 또한 죄악입니다. ㉢ 잘난체하는 단정은 독자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기 쉽습니다. ㉣ 그렇다고 보면 타당성이 있는 문장에 있어서까지 모르는 체하는 것도 독자의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것이지, 잘난 체하는 것은 글물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문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  
 구만 리 장천(長天)의 변듯이 걸려 있어  
 고운 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나)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돌아와 곁집이 문을 닫고는  
 배꽃 비진 달 보며 흐느낀다

- ①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 ②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저서를 드러낸다.

♥ 문학 시조 복합 유형 적중 <국가직 일타이프 동형 4-(2)>

문 8.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말 얹은 靑山이오 態 얹은 流水이로다  
 갑 얹은 淸風이오 翎 얹은 明月이로다  
 이 풀에 靑 얹은 이 물이 分別 얹시느니라

(나)  
 불 아니 적일지라도 절노 익는 술과  
 여물죽 아니 먹어도 크고 슬져 한 결는 말과 절슬 같호는 여기집과 술  
 심는 주전자와 양 절로 낫는 겸은 얹소 두고  
 평생에 이 다섯 가지되면 부를 거시 이시라

- ① (가)의 화자는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들을 자연에서 떠올리고 있다.
- ②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는 세속적 욕구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가), (나)는 화자의 삶에 결핍된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구 물론하고 그에게 육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육보다 음의 배짱 볼 때 마음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육 잘 하고 잘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톡 됐다. 장인께 닭 마라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는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툭툭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① 마음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 문학 작품 및 저본 위치 적중 <이유진 우월한 독해 p. 350>

"이 자식이, 일터다 말면 두굴 망해 놀 죽셈이냐, 내가 릴 가늘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자식 저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구 물론하고 그에게 육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육보다 기호 어휘 적중 <저절로 어휘·한자 p. 73>

번이 마름이란 육 잘 하고 잘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톡 됐다. 장인께 닭 마라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는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툭툭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문 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 ① 協商      ② 協贊
- ③ 協奏      ④ 協贊

♥ 보기 속 화법 이론 적중 <신유형 적중 무료특강>

협상의 당사자들은 서로의 교섭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교섭 범위한 협상 당사자 자신의 목표점에서 최종 양보점까지의 영역을 의미한다.



문 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 ② 내용이 올바르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議드립니다.

♥ 한자 동음이의어 유형과 선지 적중 <저절로 어휘·한자, 한자 비락치기, 한자본>

- 09 교정
  - ① 잘못된 생활 습관은 젊어서 矯正(비로잡음)을 받고 비로잡는 것이 좋다.
  - ② 철수는 그 수험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校訂(학교고)하고 비로잡을 정해 가며 읽었다.
  - ③ 그 책은 校正(학교고)하고 비로잡을 제대로 안 했는지 오자가 많다.

결재(決裁)      아랫사람이 올린 안건을 상관이 헤아려 승인함.  
 결제(決濟)      ① 결정하여 끝냄  
                     ② 증권, 또는 대금의 수불에 의하여 대차를 청산

검토(檢討)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림.  
 가경(假定)      ①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② 결론에 앞서 논리의 근거로 어떤 조건이나 전제를 내세움.  
                     ③ 정리에서, 어떤 조건을 임시로 내세움.

재고(再考)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  
 추리(推理)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따워서 생각함.



문 10. ㉠ ~ ㉣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우선 ㉠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 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종종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종종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

♥ 독해 이론 오류 유형 및 선지 적중 <국가직 일타이프 동형 4-(1)>

문 16. 다음 중 오류의 유형과 예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예시 1. ㉠ 언어적 오류: 모든 인간은 최연이다. 최연은 갈매에 가야 한다. 그러므로 갈매이로 모든 인간은 갈매에 가야 한다.  
 예시 2. ㉡ 부적절한 권위에 호소: 이 책은 아주 가치 있는 내용이다. 이 책은 김 씨의 권위로 사서 읽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이다.  
 예시 3. ㉢ 원천 분해: 저한테 한 톨을 던져 살기 좋은 나라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예시 4. ㉣ 분화 오류: 빨리 돈을 벌어서 돈이 유리가 목을 하자. 이것은 어디나 돈이 있다.

♥ 독해 이론 오류 유형 및 선지 적중 <예상 300제>

112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 가)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그러므로 의사기 시한부 선고받은 환자에게 치료료를 갈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 ㉠ 이번에 일어난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인슈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 ㉡ 지하철에서 라면을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허용해야 한다.



문 11. 다음 글의 수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모습이 달라진다.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위구변을 그려서 상을  
 ♥ 독해 지문 적용(유추 개념 예시 지문) 및 선지 적중 <독해 알고리즘 p. 114~p.115, 우월한 독해 p. 13~p.14>

6. 유추: 생소하거나 어려운 어떤 내용을 보다 친숙하고 쉬운 다른 것에 대응시켜 설명  
 이처럼 재료가 構成에 참가할 때 생기는 변화, 이것은 문학과 실생활을 구별하는 本質的 要素가 된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위에 말한 것이 이해될 줄 안다. 그는 어떤 完成된 構想을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適合하게 집을 짓기도 하고,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그것으로 집을 만든 집을 짓기도 한다. 어떤데, 그는 모래, 자갈, 목재, 시멘트, 합근 같은 재료를 가지고 建築이라고 하는 하나의 構想을 完成한다. 이 完成된 構想의 構成 分子가 된 재료들은 그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성질과 모습을 띤다. 즉, 시멘트의 적당한 비율로 配合되어 벽에 발린 모래는 특이하게 실려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성질, 다른 모습의 사물, 즉 構想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學의 構想을 논할 때에는 무엇 보더라도 이러한 質的인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나래국어 이유진, 이것이 진짜 적중!

문 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 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흐는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 방향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를 일으켰다. 고흐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추상주의를 일으켰다.

**적중!**

특해 지문 소재 적용 <EBS 이유진 국어 모의고사(봉투)>

11. ㉠~㉢ 중 문맥상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세잔은 대상의 여러 부분을 다양한 시점에서 파악한 후 이를 다시 결합하는 복합적인 묘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 일체적인 대상을 새로운 방법으로 묘사한 세잔의 시도는 감상자에게 역동적인 시각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당시에도 투시원근법은 물체와 공간 묘사에서 확고한 기준이었다. 투시원근법이란 ㉡ 고정된 시점에서 대상을 파악하여 평면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동시대 인상과 화가들도 이색적인 색채 구사로 대표되기는 하였으나, 공간의 표현에서는 여전히 전통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 투시원근법에서 벗어난 공간 묘사 방식을 추구했던 세잔의 노력은 특별한 것이었고, 이후 입체파 및 여러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세잔을 이어받은 입체파는 대상 물체를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하고 해체한 후 화면 위에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한 그림을 창작했다. 하나의 시점으로는 대상의 조형적 형태를 완전히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서로 다른 모습들을 재조합해 대상의 실체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세잔이 대상 물체에 고르게 충실하고자 했던 생각을 한층 심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중!**

특해 지문 소재 적용 <EBS 이유진 국어 모의고사(봉투)>

단락 제1문	○/×	단락 제2문	○/×
단락 제3문	○/×	단락 제4문	○/×
지	의존 명사 어미 일부	그를 만난 것도 꽤 오래되었다. (경파한 시간) 아빠님, 어머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분할)	
바	의존 명사 어미 일부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수식 의미 자체) = 나아갈 바를 밝히다. (행법, 방도) 서투름 정도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	
결	의존 명사 어미 일부	후회할 걸(=그 것들) 왜 그랬어. 난리가 났을 건데(=것이다).	

문 14. '짜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음운 변동 유형 적용 <국가지원사업의 동행 1-2>

문 1. 공통된 음운 변동 규칙이 적용되는 말끼리 짝지은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낮익하다. 굿하다
- ㉡ 낚는, 있는
- ㉢ 많고, 알지
- ㉣ 답답, 갈나가는

**적중!**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첨가의 된소리 적용 <예상 300제>

- ㉠ ㉡파 20 단어의 발음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파
- ㉣ ㉠파

- ① '꽃[꽃], 앞[아래]'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나지 않고 연음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꽃[꽃], 앞[아래]'를 통해 한 단어 안에서 음절의 끝소리와 함께 또 다른 음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꽃[꽃]과 '꽃[아래]'를 비교해 보면 음절의 끝소리는 단어와 단어가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앞[아래]와 '앞[아래]'를 비교해 보니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난다.

문 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넘겨줄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특해 지문 소재 적용 <개념 확장> 및 선지 패턴 적용 <독해알고리즘 패턴 10>

근대 이전의 예술은 비현실적인 허구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에 집중하여 평범한 인간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없는 특별한 세계를 물려 주었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어 삶과 유리된 공상적 공간을 허물고 미적 경험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해 계속 되었다. 게르노트 비메는 예술의 이런 새로운 노력을 '확장된 미적' 혹은 '확장된 예술 개념'이라고 정리한다. 비메의 이론의 핵심은 예술적 경험이나 미적 경험과 일상적인 삶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비메는 대중 매체 시대 이전의 예술 작품이 지녔던 아우라(aura) 개념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의 경험에서도 일종의 '분위기'로서 미적 경험을 한다. 비메는 미적 경험이 우리가 환경과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상황, 곧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적중!**

- ① 예술적 경험이 미적 경험과 일상적인 삶을 구분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 작품과 일상적 삶은 구분하였다.

문 16.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반의어의 종류 유형과 선지 적용 <예상 300제>

36. 반의어의 종류 유형 예시가 바르게 제시된 것은?

상보 반의어	정도 반의어	방향 반의어
① 참-거짓	환색-검은색	위-아래
② 남자-여자	희생-건승	삼-죽음

**적중!**

반의어의 종류 유형과 선지 적용 <알기 쉬운 문법 p. 316, 문법의 단권화 p. 80>

1) 상보 반의어: 반의 관계의 정면적 정반대 상보 반의어인 두 구문으로 절제된 단어가 쌍이다. 중간형이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

2) 정도 반의어: 정도 등량에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단어 쌍을 의미한다. 정도 반의어는 다시 척도(程度) 반의어, 평가(評價) 반의어, 경향(傾向) 반의어로 나눌 수 있고 중간형이 존재하며 동시에 부정적 가능하다.

3) 방향 반의어: 반의 관계의 정면적 정반대 상보 반의어인 두 구문으로 절제된 단어가 쌍이다. 중간형이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

4) 상보 반의어: 반의 관계의 정면적 정반대 상보 반의어인 두 구문으로 절제된 단어가 쌍이다. 중간형이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

문 17.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말살할 ㉠술브리 하디 天命을 疑心하실세 썩으로 ㉡뵈아시니  
늘애들 브리리 ㉢하디 天命을 모르실세 썩으로 ㉣알아시니

(말살을 아뢰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썩으로 ㉠추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썩으로 ㉡알아하시니

**적중!**

-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 ②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고전 문법 형태소 출제 적용 <국가지원사업의 동행 2-1>

- ㉠부대 目連(목련)의드려 ㉡니르사디  
耶輸(야수) | ㉢부뵈 使者(사자) 았다 드르시고  
내 썩 勝鬘(승만)이 聰明(총명)호니 부뵈오 ㉣보보뵈면

고전 문법 형태소 출제 적용 <국가지원사업의 동행 2-2>

문 13. '여보살'을 쓴 문헌의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네 이르러서부터 온다 B: 내 王京(왕경)에서부터 온다
- A: 이제 이르러 가는다 B: 내 北京(북경)으로 향하야 가는다
- A: 네 언제 王京(왕경)에서 떠났다 B: 내 이 洞(동) 초하야 떠났다

- ① A와 B 모두 '아래'와 '어두자음'을 사용했다.
- ② 파격 시제 선어말 어미 '-았/-았-'이 쓰이지 않았다.
- ③ '네, 내'에 주격 조사 '가'를 할 수 있었지만 생략했다.
- ④ A는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에 '-나'를 썼고, B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대답만 하였다.

문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가 고구려 궁중에서 파낸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백제는 만월(만월)이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라서 쇠되고 쇠는 신라는 두고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가 건국되었다.

**적중!**

특해 지문 소재 적용 <대조> 및 선지 패턴 적용 <독해알고리즘 패턴 10>

한반도에서 행해진 곡예는 자생적 전통을 바탕으로 삼국시대에 서역과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몇몇 종목이 더해지면서 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무다리걸기, 곤봉발기 등과 같은 곡예종목은 발견할 수 있지만 즐타기, 땅채주, 솟대타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구려 이전 한나라 고분에는 이런 종목이 그려져 있으며 고구려에 전래 연희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고

- ① 고구려에서는 나무다리걸기, 곤봉발기 등의 곡예 외에 즐타기, 땅채주, 솟대타기 등은 연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② 한반도에서 연행된 곡예종목의 기원을 고구려시대 문헌 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 ③ 중국 사신 동행은 고구려시대 연희의 세련된 기교를 칭찬하는 기록을 남겼다.
- ④ 한나라 고분벽화에서는 즐타기, 땅채주, 솟대타기 그림을 찾을 수 없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19. ~ 문 20.]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르려 하는데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고' 하였다. 이윽고 한 중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다.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물.

"산문 19. ㉠ ~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순서는 무엇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중!**

문 20.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상'은 꿈에서 남에서 '중'을 보았던
- ② '승상'은 꿈에서 남에서 '중'을 보았던

문학 작품(지문 위치) 적용 <울인원 단원 문물 4주>

문 51. 다음 글에 대한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상이 자שה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흥연 깨쳐 능파나자를 돌아보며 물

문학 작품 적용 <울인원 모고 2-6>

문 52. '성진'과 '대사'의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진! 인간 세상의 재미가 과연 어떻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성진은 이미 크게 깨달았습니다. 재가 무려하여 마음을 버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스스로 지은 죄를 무어하여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응당 흠 많은 세상을 탓하면서 영원히 윤회의 재앙을 받았을 텐데, 사부께서 허탈의 꿈을 불러일으켜 성진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부의 큰 은덕은 비록 천만 겁의 시간을 재래하더라도 갈 길이 없습니다."  
대사가 말했다.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한 일이 있겠느냐? 또한 내가 '재가' 인간 세상의 윤회하는 일을 꿈으로 꾸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네가 꿈과 인간 세상을 나누어서 둘로 보는 것이다. 너의 꿈은 오히려 아직 깨지 않았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또 변하여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나비가 꿈에

**5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남부고시온라인에서  
이유진 라이브 특강!



**5월 21일 월요일**  
이유진 나래국어  
서울시 유형 복제 모고 개강!